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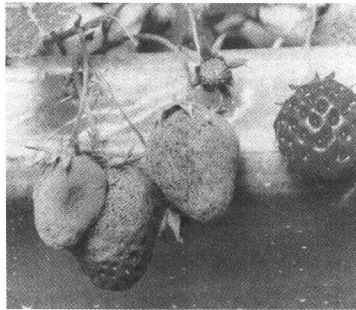
체계적 · 정기적 예방위주로 고온다습 피해 살포



명인식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잿빛곰팡이병

시설 내 습도를 낮추는 것이 잿빛곰팡이병 발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과습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고, 토양전면을 멀칭하고 배수를 개선하고 밀식과 잦은 분무를 피한다. 특히 열매가 잎에 가려지거나 접촉되어 있으면 접촉부위에 과습이 조장되어 물과 접촉기간이 길어져 감염되기 쉽다. 그러므로 딸기 열매를 네트나 끈 등으로 잎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재배하여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이 잘 들도록 환경을 개선하면 병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병든 부위를 조기 발



견하여 전엽원의 신속 제거가 가능하게 되고, 수확작업의 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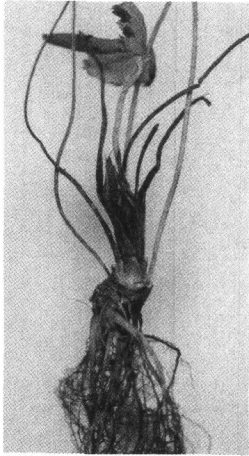
방제약제에 대한 내성균 발생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지만 내성균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약제 또는 같은 계열

약제의 연용을 지양하고 교호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약제내성균 검출이 낮은 약제를 조합해서 처리하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잎과 열매를 떨어뜨려 재배하여 약제 방제시 수확제 등 약제 살포로 인한 과습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어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흰가루병

육묘기부터 약제를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방제하여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초기방제에 소홀하여 잎이 말려 올라갈 때까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약제 살포는 고온기나 지나치게 습도가 높은 날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잎 뒷면, 엽병, 과실 등에 약제가 골고루 묻도록 처리한다.

흰가루병의 균사나 포자는 약액이 잘 묻지 않으므로 방제할 때 전착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약혼이 많이 남는 약제일 경우 수확기 무렵에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포자는 물에 약하므로 액제가 효과면에서 우수하지만 흐린 날은 혼연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벌에 대한 잔류독성을 고려하여 개화기에는 약효의 지속기간이 짧거나



벌에 피해가 적은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살포
량은 10a당 200 l 정도,
살포간격은 5~6일이 적
당하다.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흰가루병을 방제할 수
있다. 초세가 약할 때 발
생하기 쉬우므로 지속적

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일조량을 충분히 확보하
여 주는 것이 좋다. 연동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할
때 흰가루병의 발생이 증가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일조부족이다.

또한, 노화된 잎에는 병균이 잠복해 있을 가능성
이 높으므로 적절히 제거하여 통기와 약제 살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밀식을 피하고, 다습
의 원인이 되는 잡초 방제도 병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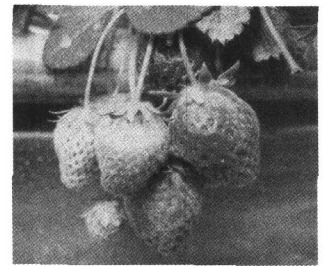
탄저병

탄저병은 재배법 개선으로 방제가 가능하다. 먼
저 병에 걸리지 않는 모종을 사용해야 한다. 월동할
어미그루는 탄저병이 발생하지 않은 포장의 모종
을 사용하되 모판에 심기 전에 반드시 병균에 오염
되지 않은 어미그루만 선발하여 사용한다. 봄철에
제1번 런너의 새끼모종이 뿌리를 내린 다음 어미그
루를 제거하면 탄저병 뿐만 아니라 새끼모종도 감
염될 수 있는 다른 병을 예방할 수 있다.

토양소독을 실시한다. 모판이나 포판으로 활용
할 포장은 딸기를 재배하지 않은 곳을 선정 하거나
미리 토양소독을 실시하고 재배포장도 약제처리
또는 여름철에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소독 으로 탄
저병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가림 재배를 한
다. 비가 오거나 물을 줄 때 탄저병균의 포자가 물
방울과 함께 튀어 전파되기 때문에 포자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포장과 한때 심을 모판을 비닐
로 피복하여 비가림 재배를 하면 효과적이다.

물주기 및 물빼기 방법을 개선한다. 논을 이용,
육묘포장을 만들고 물주기를 쉽게하기 위해 고랑

물 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탄
저병은 토양수분이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밭 토
양과 같이 물이 잘
빠지는 곳을 육묘포장으로 이용하고 물빼기대책
을 철저히 세우는 것도 병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이다.



포장청결 및 아래 잎을 제거한다. 육묘중에 아랫
잎을 제거하면 제거부위를 통해 병균이 침입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아랫잎 제거는 맑은날에 실시토
록 한다. 병에 걸린 잔재물은 포장이나 주위에 방치
말고 완전히 태워 없애거나 비닐봉지에 넣고 공기
를 빼낸 다음 입구를 묶어 밀봉상태로 몇 달간 햇별
이 있는 곳에 놓아두면 혐기적 발효가 이루어져 병
원균이 불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다.

또한 탄저병에 등록된 약제를 선택하여 안전사
용기준을 잘 지켜 예방위주로 사용할 때 약해를 예
방할수 있고 방제효과도 높일수 있다. ㉞